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



2022.10.13.—12.18.



© LG아트센터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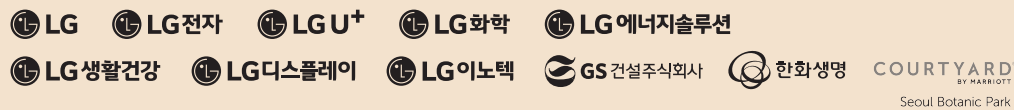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우리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After successfully running the center for 22 years, the LG Arts Center will nestle in its new home in the Magok area, Gangseo district, Seoul. With its new construction designed by world-famous architect Tadao Ando,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be reborn as an open space that offers an expanded artistic experience surrounded by a rich natural environment.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remain a space where creative artists and passionate audiences can meet and communicate freely, a performing arts center that can be appreciated and visited at any time.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 마곡으로 이전한 LG아트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한층 확장된 예술 체험이 가능한 공간, LG아트센터 서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의 개관 페스티벌은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후원 Supported by



건축

Architecture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LG아트센터 서울은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 그리고 LG아트센터 서울의 시그니처 공간인 '튜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된 향기 '136'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design of the LG Arts Center SEOUL fully reflects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of Tadao Ando, which is to let nature blend into the architecture. Find out more about the architecture through the Audio Tour of the Architecture, which tells the stories behind the scenes and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of Tadao Ando. Also, come and experience 136, a fragrance inspired by one of the signature spaces of the LG Arts Center SEOUL: the TUBE.

건축 다큐멘터리



건축 오디오 투어

Architecture Audio Tour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하는 누구나 셸프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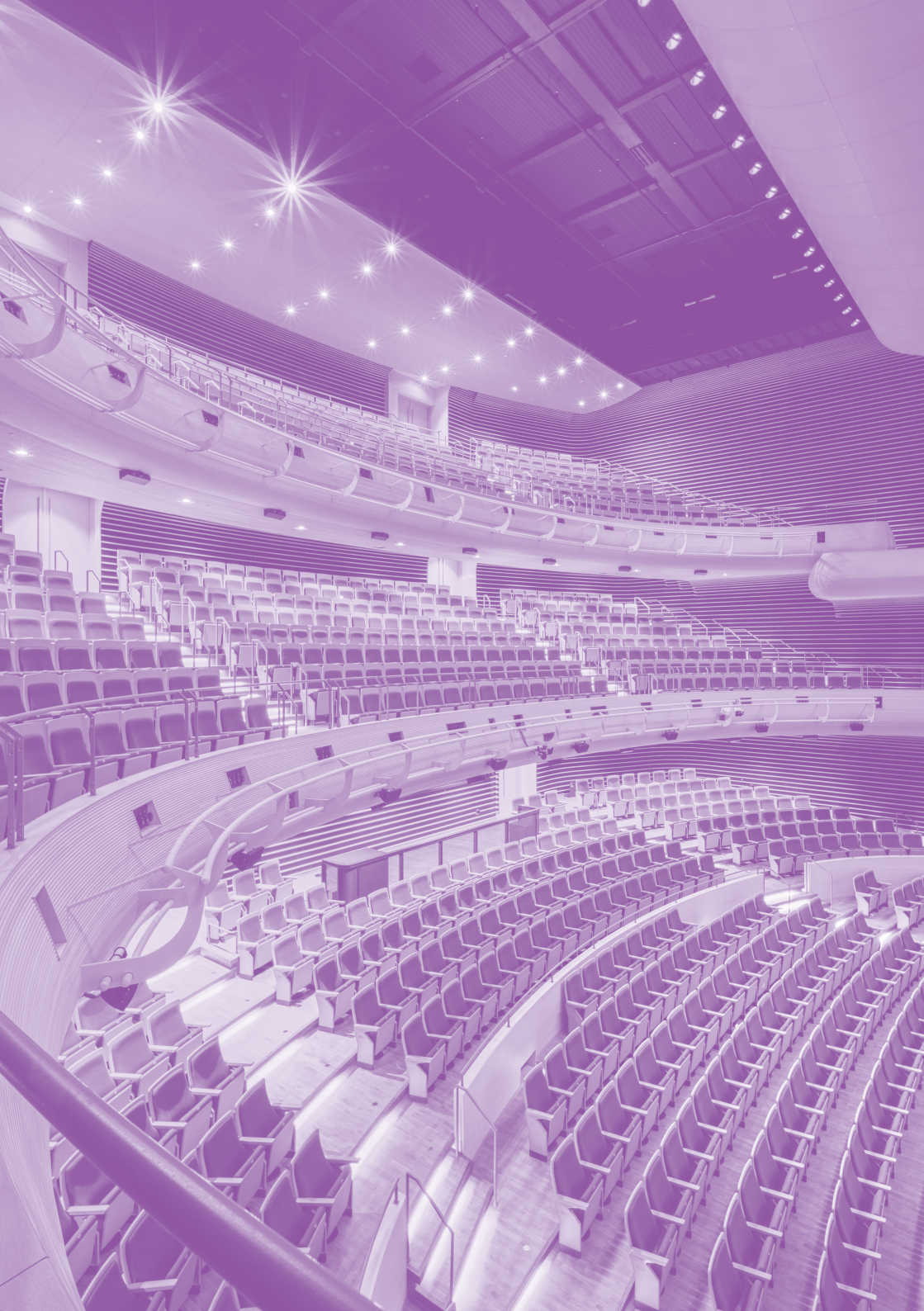
건물의 외관부터 건축가의 세 가지 디자인 컨셉, 그리고 공연장과 전시 공간 및 루프탑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마주하게 되는 8개의 스팟에서 박해수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최/기획 | LG아트센터
주관 | 정림건축문화재단
글 | 건축가 배윤경
내레이션 | 배우 박해수



건축 오디오 투어 소개





LG SIGNATURE 홀

LG SIGNATURE Hall



© 배지훈

LG SIGNATURE 홀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335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어떠한 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무대와, 장르에 맞춰 변화하는 음향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 안에 숨겨진 배너 커튼(VABS)을 통해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박스 인 박스(Box in Box)'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LG SIGNATURE 홀은 본질(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The LG SIGNATURE Hall is a multipurpose theatre that combines the size of an opera house. It can accommodate almost all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operas, musicals, ballets, and concerts.

The theatre boasts an acoustic environment equivalent to a professional concert hall and is equipped with high-end technologies, like the 'Variable Acoustic Absorption System', 'Reflectors', and a 'Moving Tower'. With all of these theatre features, it allows to create an acoustic setting for all genres of art.

Sponsored by **LG SIGNATURE**

© 배지훈



개관공연

사이먼 래틀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piano 조성진)

10.13.Thu 7:30pm

LG SIGNATURE Hall

VIP 400,000 R 350,000 S 280,000 A 190,000

B 100,000

Sir. Simon Rattl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Seong-Jin Cho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약 100분(휴식포함)

Age Guidance | 8+

Duration | Approx. 100mins with an interval



©StudioAL

CLASSICAL MUSIC

동시대 음악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훈장과 기사작위를 받은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 경이 이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ondon Symphony Orchestra)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 첫 무대에 선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애호가부터 처음 듣는 사람까지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는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이다.

1904년 창단 이래, 120년 넘게 축적해온 연주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런던 심포니만의 독보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LG아트센터 서울 개관공연의 지휘를 맡은 사이먼 래틀 경은 22세 나이에 그가 첫 지휘를 한 것을 시작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16년간 상임지휘자로 활동해 온 베를린 필하모닉을 떠나 런던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정식 부임했고, 그의 재임기간 동안, 런던 심포니는 음악적 스펙트럼과 깊이, 모두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이먼 래틀 경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공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향곡뿐 아니라, 오페라 음악, 발레 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택했다. 시벨리우스가 남긴 7개의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할 뿐 아니라, 가장 완성도 높다고 평가받는 ‘교향곡 7번’,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바그너가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곡을 완성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과 죽음’, 프랑스로 ‘알츠’라는 뜻을 가진 라벨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곡 ‘라 발스’까지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개관공연의 협연자로 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15년 바르샤바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카네기홀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에서 ‘기적 같은 솜씨’(뉴욕타임스)라는 극찬을 받으며, 그가 전성기를 맞은 세계적인 연주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연주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조성진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피아노 협연곡으로 선택했다. 피아노의 화려한 테크닉과 감미로운 선율의 관현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짐에서 오는 벅찬 감동을 기대해도 좋다.

사이먼 래틀 경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공연할 LG SIGNATURE 홀은 물 흐르듯 유려한 곡선으로 나무 벽체가 공연장 내부 전체를 감싸고 있어 객석에 입장하자마자 청중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벽, 무대, 콘서트 타워, 어쿠스틱 패널, 우드 클라우드 실링까지, 공연장을 설계한 안도 타다오가 세심하게 고른 화사하고 온화한 색감의 나무로 극장 전체를 감싸고 있어 공연 내내 자연 속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휴식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3/24 시즌을 끝으로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먼 래틀 경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마지막 내한이어서 더욱 뜻 깊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사이먼 래틀 경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전성기를 맞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LG아트센터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공연은 콘서트를 찾은 관객들에게 동시대 역사적인 음악의 한 순간을 함께 하는 특별한 의미까지 선물할 것이다.

CLASSICAL MUSIC

알 디 메올라 재즈 트리오 (guest guitar 박주원)

10.15. Sat 7pm
LG SIGNATURE Hall
R 90,000 S 70,000 A 50,000

재즈와 록, 클래식부터 보사노바까지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기타의 마법사(guitar wizard)'라고 일컬어지는 알 디 메올라가 10년 만에 내한한다. 알 디 메올라는 인도 전통 타악기 타블라 연주자 아미트 카프테카르(Amit Kavthekar)와 퍼커셔니스트 세르히오 마르티네즈(Sergio Martinez)와 함께 트리오 구성으로 한국을 찾는다.

칙 코리아(Chic Corea)가 이끈 전설적인 밴드 '리턴 투 포에버(Return To Forever)' 기타리스트로 19세에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76년 첫 솔로 앨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장이 넘는 앨범들을 발표하며 전 세계 뮤지션과 협업해왔다. 특히, 1980년에 알 디 메올라가 파코 데 루치아, 존 맥러플린과 한 무대에서 공연한 라이브 연주를 녹음한 앨범 <Friday Night in San Francisco>는 2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신들린 듯한 테크닉과 관객들을 사로잡는 라이브 무대로 대중음악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한국의 '집시 기타 히어로' 박주원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알 디 메올라와 첫 번째 듀엣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숨이 멎을 듯한 폭발적인 속주와 해 질 녘 해변에 누워있는 듯한 여유로움,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환상적인 라이브 연주에 몸을 맡겨보자.

Al Di Meola Trio (guest guitar Park Juwon)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약 120분(휴식 포함)
Age Guidance | 8+
Duration | Approx. 120mins with an interval

With his extensive range of musicianship, stretching from jazz and rock to classical music and bossa nova, Al Di Meola is regarded as a guitar wizard and is returning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to present a trio performance together with the percussionist Sergio Martinez and Amit Kavthekar, who will be playing the tabla (twin hand drums), a traditional instrument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One of Korea's leading guitarists, Park Juwon, will also appear on stage as a guest guitarist.



박정현 콘서트 '지금'

10. 19. Wed - 10. 22. Sat

Weekdays 7:30pm / Sat 5pm

LG SIGNATURE Hall

R 140,000 S 130,000 A 110,000 B 90,000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표현을 겸비한 최고의 보컬리스트

‘꿈에’, ‘미아’, ‘편지할게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수많은 명곡의 주인공이자, <비긴 어게인>, <나는 가수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라이브 실력을 입증해 온 보컬리스트 박정현.

R&B, 팝은 물론 재즈와 모던락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해 내는 그녀는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표현을 겸비한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왕성한 음악과 방송 활동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가 팬데믹 이후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LG아트센터(역삼)에서 5번(2005, 2008, 2009, 2011, 2018)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던 박정현이 새롭게 탄생한 LG아트센터 서울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공연이기도 하다.

수백 명과 함께 들어도 오로지 나와 그녀와 노랫소리만 존재하는 듯한 독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보컬리스트 박정현. 그녀와 함께 새로운 무대에서 오직 라이브 공연이 줄 수 있는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Lena Park *This Moment*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120분 내외(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Duration | Approx. 120mins with no interval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endearing vocalists of our times, Lena Park brings out our most intimate feelings through her explosive high-pitched voice and delicate emotional expressions. Having held five solo concerts at the previous LG Arts Center in the Yeoksam area, Lena Park will hold her first solo concert since the pandemic began, at the newly opened LG Arts Center SEOUL.



이날치 신작 '물 밑'

10. 28. Fri - 10. 30. Sun

Weekdays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R 70,000 S 50,000 A 30,000

이날치의 손길이 닿으면 모든 것이 새롭다
'범 내려온다' 이후, 이날치가 만든 두 번째 음악
최초 공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으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6억 뷰를 넘는 전무후무한 기록 달성,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MAMA) 3개 부문 수상,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3개 부문 수상을 거머쥔 주인공,
이날치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다.

이날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온통 '범'으로
몰들었다. '(두둑치, 두둑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맴도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코로나 시기를 우울하게 보내던 사람들에게 흥과
힘을 가득 채워주었다. '판소리가 시대의 옷을 제대로
입으니 이보다 더 세련될 수 없다'(매일경제), '희한하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낯설다'(BBC RADIO), 이날치는
전통과 익숙함 속에 숨겨져 있는 새로움과 재미를
그들의 방식으로 꺼내어 남녀노소 동서양 구분없이
제대로 즐기게끔 해주었다. '수궁가' 다음 정규 음반을
작업 중인 이날치가 10월 개관하는 LG아트센터 서울,
새로운 무대에서 그들의 새 음악을 공개한다!

희한하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낯설다 - BBC RADIO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LEENALCHI *Mul Mit*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60분 내외(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Duration | Approx. 60mins with no interval

LEENALCHI is an alternative pop band that
reached more than 600 million views on
YouTube after starring in a promotional video for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titled "Feel the
Rhythm of Korea"; the following year, they won
three awards at the 18th Korean Music Awards.
Following their first album, *Sugungga*, which
triggered a craze over one of its songs, "Tiger is
Coming," LEENALCHI's second project will be
released for the first time at the LG Arts Center
SEOUL.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DR's Pick III '세헤라자데' (piano 선우예권)

11. 3. Thu 7:30pm
LG SIGNATURE Hall
R 70,000 S 50,000 A 30,000 B 10,000

벨기에 출신의 지휘자 다비트 라일란트(David Reiland)를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고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로잔 심포니에타, 프랑스 메츠 국립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역임한 다비트 라일란트는 세계 클래식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40대의 젊은 지휘자인 그는 엄숙한 지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춤을 추듯 몸을 들쭉이며 음악에 폭 빠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계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가 직접 연주곡을 엄선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DR's Pick' 시리즈의 세 번째 공연이다. 2013년 미국 저작권협회 젊은 작곡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상주 작곡가 전예은의 '장난감 교향곡' 세계 초연,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천일야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세헤라자데', 그리고 2017년 미국의 밴 클라이버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의 음악이 지닌 새로운 영역에의 추구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REVIEW

David Reiland,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d Yekwon Sunwoo: Rimsky-Korsakov, Tchaikovsky, and Yie Eun Chun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120분(휴식 포함)
Age Guidance | 8+
Duration | 120mins with an interval

The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is taking a momentous step forward, appointing as its new artistic director David Reiland, a Belgian conductor who is one of the most notable figures in the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scene. The orchestra will present the world premiere of "Toy Symphony", composed by Yie Eun Chun, "Scheherazade," composed by Nikolai Rimsky-Korsakov, and Tchaikovsky's Piano Concerto No. 1, performed together with Yekwon Sunwoo, an award-winning pianist who was the recipient of the gold medal at the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7.



©midobv

PROGRAM

전예은 장난감 교향곡 *국립심포니 위촉 세계 초연

Yie Eun Chun Toy Symphony
*World premiere by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나단조 Op. 23
P. I.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 1 b-flat minor, Op. 23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Op. 35
N. Rimsky-Korsakov Scheherazade Op. 35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선우예권



전예은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

11. 10. Thu - 11. 13. Sun
Weekdays 7:30pm /
Sat 2pm, 7pm / Sun 2pm, 6:30pm
LG SIGNATURE Hall
R 85,000 S 65,000 A 45,000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LG아트센터 서울 개관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 <더 일루션>을 업그레이드한 <더 일루션-마스터피스>를 처음 선보인다.

2006년, 마술사들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마술사연맹(FISM)에서 아시아인 최초, 제너럴 부문 1위를 차지하고 라스베이거스 특별상까지 받으며 세계 정상급의 마술사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마술을 하나의 언어로 활용해 동시대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루션'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2016년, 현대 공연예술의 메카인 프랑스 파리의 떼아뜨르 드 라 빌에 초청되어 마술의 역사를 다룬 렉처 퍼포먼스를 올리기도 했다.

<더 일루션-마스터피스>는 지금까지 공연 횟수 1,000회,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기며, 10년 넘게 관객의 사랑을 받은 <더 일루션>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LG아트센터 서울의 개관을 기념하여 업그레이드한 이번 작품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제작한 새로운 세트와 새로운 구성을 통해 더욱 스펙터클한 공연을 선보인다.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그의 공연을 만나보자!

한국 마술의 세계는 이은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SBS RADIO

Eungyeol Lee *The Illusion-Masterpiece*

관람연령 | 6세 이상
소요시간 | 12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6+
Duration | 120mins with no interval

Eungyeol Lee is a world-class illusionist who was the first Asian magician to win the 1st place prize in the general magic category a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agic Societies (FISM), the so-called "World Cup of magicia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LG Arts Center SEOUL, EG Lee will present the premiere of *The Illusion-Masterpiece*, an upgraded version of his most famous work, *The Illusion*. Through a new set constructed in Las Vegas and a new show composition, audiences will be offered an unimaginably spectacular performance.



아크람 칸 컴퍼니 '정글북: 또 다른 세계'

11. 18. Fri - 11. 19. Sat
Fri 7:30pm / Sat 3pm
LG SIGNATURE Hall
R 90,000 S 70,000 A 50,000 B 30,000

“우리는 모두 지구에 초대받은 손님들일 뿐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출연하고, 배우 줄리엣 비노쉬, 무용수 실비 길렘 등과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진 현대 무용계의 거장, 아크람 칸이 신작 <정글북: 또 다른 세계>로 LG아트센터 서울을 찾는다. 2022년 4월 영국에서 초연하고, 파리 샤틀레 극장,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 유럽 전역을 투어하고 한국에 찾아오는 그의 최신작이다.

아크람 칸의 손에서 새롭게 창작된 <정글북: 또 다른 세계>는 울창한 정글이 아닌 황폐해진 근미래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동물원과 실험실에서 풀려난 동물들이 지배하는 땅에, 기후변화로 고향을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표류하던 난민 모글리가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영화감독이자 모션 캡처의 전설적인 선구자 앤디 서키스가 자문을 맡아, 실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한 애니메이션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무용수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무대 위를 종횡무진 누비는 10여 명의 무용수는 <정글북: 또 다른 세계> 속 각각의 고유한 동물적 특성을 움직임에 반영하여, 눈을 땔 수 없는 원초적인 강렬함을 선사할 것이다.

Akram Khan Company *Jungle Book reimagined*

관람연령 | 10세 이상 추천
소요시간 | 120분(휴식 포함)
Age Recommendation | 10+
Duration | 120mins with an interval

Akram Khan is a master of contemporary dance. In the past, he has collaborated with stars like actress Juliette Binoche and dancer Sylvie Guillem and even choreograph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2 London Olympics. Khan is now visiting the LG Arts Center SEOUL with his new creation, *Jungle Book reimagined*, a fresh new work coming on the heels of its premiere on the UK in April 2022 and a subsequent European Tour, which includes performances at Théâtre du Châtelet and th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 Ambra Verrucio

후원  BRITISH COUNCIL
주한영국문화원

요안 부르주아 & CCN2 Grenoble '기울어진 사람들'

11. 25. Fri - 11. 27. Sun
 Fri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90,000 R 80,000
 S 60,000 A 40,000

중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놀라운 움직임,
 요안 부르주아의 국내 최초 내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크로바티카 안무가인 요안 부르주아(Yoann Bourgeois)는 작품뿐만 아니라 LG SIGNATURE, 애플(Apple)의 에어팟, 패션 브랜드 갭(GAP)의 광고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이다. 트램펄린, 턴테이블, 추, 시소 등의 세트를 활용해 중력을 미학적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서커스나 현대무용 등의 장르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합적이며 독보적이다. 2017년 프랑스 파리 팡테옹에서 촬영된 댄스 필름 <위대한 유령>은 2018년 샌프란시스코 댄스 필름 페스티벌 '베스트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상', 2019년 댄스 스크린 '베스트 필름상' 등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는 2020년 LG아트센터 디지털 스테이지 CoM+On을 통해 소개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기울어진 사람들>은 요안 부르주아라는 이름을 세계 공연예술계에 깊이 각인시킨 대표작이다. 회전하는 사각형 판자 위에서 무용수들은 원심력과 중력을 활용하여 넘어질 듯 기울어지고, 떨어질 듯 매달려있다. 팝송 '마이웨이'의 잔잔하고도 담담한 선율 속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무용수들을 몰아붙이는 역설적인 연출과 안무는 관객들에게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준다.

Yoann Bourgeois & CCN2 Grenoble *He Who Falls*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6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Duration | 60mins with no interval

같은 날, 다른 무대 'U' 스테이지'에서 펼쳐질 요안 부르주아의 솔로작 <오프닝2>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크로바티카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다. LG아트센터 서울의 개관 축하를 위해 직접 내한하는 요안 부르주아가 직접 무대에 오르는 공연이며, 10분 남짓 짧은 러닝타임이 무색할 만큼 뇌리에 길게 남는 순간이 될 것이다.

Yoann Bourgeois, a leading French acrobat and choreographer, will meet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He Who Falls* is a major work of his that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scene; audiences will be invited to a state of complete immersion by dancers who lean and hang on a rotating square plane using centrifugal and gravitational forces. On the same day of that performance, *Opening2* will be presented on a different stage, where Yoann Bourgeois will perform himself to offer the audience a lasting memory, despite its short running time of 10 minutes.

협찬
LG SIGNATURE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 Géraldine Aresteonu



© Pascale Cholette

요안 부르주아 '오프닝2' Yoann Bourgeois *Opening2*

Executive produced by CCN2 Grenoble

11. 25. Fri - 11. 27. Sun
 Fri 7:10pm, 8:50pm /
 Weekend 2:40pm, 4:20pm
 U'스테이지

*본 공연은 <기울어진 사람들> 구매자에 한 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1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Duration | 10mins with no interval

김설진X무버 & 김재덕X엠비크루 ‘브레이크 스루’

12. 2. Fri - 12. 3. Sat
Fri 7:30pm / Sat 3pm
LG SIGNATURE Hall
R 60,000 S 40,000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두 개의 장르와 네 개의
세계가 격돌하며 찾아낸 눈부신 발견!

한국 현대무용의 현주소이자 국내외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안무가 김설진과 김재덕이 스트리트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유럽 무대에서 무용수로 활동할 당시 ‘찰리 채플린과
마르셀 마르소를 능가한다’(La Theatrotheque)는
극찬을 받았던 안무가 김설진은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올라운드 스트리트 댄서들이 새롭게
합류한 그룹 ‘무버(Mover)’와 함께 신작을 선보인다.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그 사이의 흥미로운 교차점을
발견해 나가며 김설진의 연출력에 다양한 크루들의
개성을 잘 녹여낼 예정이다.

2021년 LG아트센터 무대에서 <다크니스 폼바>를
선보였던 ‘전방위 예술가’ 김재덕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폐막 공연을 화려하게 빛낸
엠비크루와 함께 2020년, 2021년 발표했던 <마당>
시리즈의 또 다른 버전을 선보인다. 김재덕만의 상상력
넘치는 연출과 안무로 오로지 바닥만 존재하는
텅 빈 무대 위에 벽이라는 면과 선, 그리고 이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댄서들의 동작을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하게 그려낼 것이다.

*김재덕X엠비크루의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대표 B-boy단 사업(작품개발)’의 일환으로 제작된
<마당(2020)>, <마당-인터랙션(2021)>을 모티브로 재창작된 공연입니다.

KIM Seol-jin X Mover & KIM Jae-duk X M.B Crew *Breakthrough*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약 75분 내외(휴식 포함)
Age Guidance | 8+
Duration | Approx. 75mins with an interval

Two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prominent
choreographers who represent today’s
topography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KIM Seol-jin and KIM Jae-duk are joining forces
with Korea’s leading street dance crews.

KIM Seol-jin collaborates with the Mover, a
group that newly joined by all-round street
dancers based on various genres, and KIM Jae-
duk works together with the M.B Crew, one of
the brightest stars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losing ceremony.



©StudioAL

김설진 X 김재덕

이자람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12. 9. Fri - 12. 10. Sat
Fri 7:30pm / Sat 4pm
LG SIGNATURE Hall
All Seats 50,000

이자람이 부르면 그것이 원작이 된다.

LG아트센터에서 <억척가>를 3년 연속 공연하며 '전회 매진, 전회 기립'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던 소리꾼이자람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각색한 새로운 작품으로 LG아트센터 서울을 찾아온다.

이자람은 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이수자로서 판소리와 더불어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유례 없이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는 만능 아티스트이다. 1999년 '춘향가'를 8시간 완창에 성공, 최연소 춘향가 8시간 완창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렸으며, 2012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 부문, 2016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하고 뮤지컬, 연극 분야에서도 수상을 한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다. 그녀의 전작 <사천가>, <억척가>, <이방인의 노래>는 프랑스 국립민중극장, 호주 시드니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브라질, 대만, 일본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되며 판소리극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이자람만의 무대 장악력이 빛을 발하는 <노인과 바다>를 만나보자.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무대에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공연장에 함께하는 모두가 드넓은 바다 위의 산티아고가 되어있을 것이다.

*판소리 <노인과 바다>는 2019년 11월 26일 두산아트센터에서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으로 초연한 작품입니다.

Lee Jaram's Pansori Theatre *The Old Man and the Sea*

관람연령 | 12세 이상
소요시간 | 120분(휴식 포함)
Age Guidance | 12+
Duration | 120mins with an interval

A singer and storyteller, Lee Jaram made a name for herself with Ukchuk-ga after completely selling out and receiving a standing ovation for every show over a three-year period. Lee is now returning to the stage with her adaptation of Ernest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As one of the successors of Pansori—the 5th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and an unprecedented, multifaceted entertainer active in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musicals, theatre, and music bands, Lee invites audiences to enter the world of *The Old Man and the Sea*, which she has newly written through her brilliantly clever imagination.

*Pansori *The Old Man and the Sea* had been world premiered at Doosan Art Center Korea on 26th November 2019.



© 두산아트센터

파보 예르비 &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violin 클라라 주미 강)

12. 11. Sun 3pm
LG SIGNATURE Hall
VIP 200,000 R 150,000 S 100,000 A 60,000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파보 예르비의 역사적인 첫 만남

“언제 또 이렇게 재미있는 베토벤을 들을 수 있을까”(월간 객석), 2014년 내한 당시, 새롭게 해석한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었다는 평을 들었던 지휘자 파보 예르비와 세계 최고의 챔버 오케스트라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이 울겨울, LG아트센터 서울을 ‘베토벤의 밤’으로 물들인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파보 예르비는 가는 악단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진 지휘자다. 2001년 수석지휘자로 취임하여 2012년까지 활동하는 동안, 무명에 가까웠던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미국 ‘뉴 빅5’(뉴욕 The Sun 선정) 오케스트라로 키워냈고, 그래미상 ‘최우수 합창 퍼포먼스 상’까지 수상하며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2010년부터 6년간 파리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할 당시 까다롭기로 소문난 단원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유명한 일화는 그가 가진 탁월한 음악성과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 에스토니아 방송국 ‘올해의 음악가’ 선정, 2013년 에스토니아 대통령 훈장, 2015년 그라모폰 ‘올해의 아티스트상’과 ‘디아파중상’, 2019년 오푸스 클래식 ‘올해의 지휘자 상’ 등 수많은 상과 훈장들은 그의 음악적 공로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Paavo Järvi, Th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and Clara- Jumi Kang: Haydn and Beethoven

관람연령 | 8세 이상
소요시간 | 120분(휴식 포함)
Age Guidance | 8+
Duration | 120mins with an interval

이번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으로 함께 해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한 곡으로 꼽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Paavo Järvi is a conductor known for creating new values with every orchestra he takes directorship of. Under Järvi’s direction, Th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one of the world’s leading chamber orchestras, invites LG Arts Center SEOUL audiences to plunge into a Night of Beethoven. In collaboration with world-class violinist Clara-Jumi Kang, the orchestra will present Beethoven’s Violin Concerto, the sole violin concerto written by the legendary composer, and today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greatest violin concertos in history.



© Julia Boier

PROGRAM

하이든 교향곡 96번
Haydn: Symphony No. 96 in D Major, Hob.I:96 -
“The Miracle”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Beethoven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베토벤 교향곡 8번
Beethoven Symphony No. 8 In F Major, Op. 93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클라라 주미 강



U+ 스테이지

U+ Stage



© 배지훈

U+ 스테이지는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무대와 객석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17개의 이동식 객석 유닛으로 구성된 '시팅웨건', 60개의 스피커를 통해 완성되는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격자무늬 와이어 그물 '텐션 와이어 그리드'는 아티스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U+ 스테이지는 LG U+ 네이밍 스폰서를 받아,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만드는 LG U+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The U+ Stage is a black box theatre that can be set up in any form for any given performance which allows artists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with their imagination. The theatre's 'Seating Wagon' consists of 17 movable seating units, which can be assembled in many different ways to create various stages and auditorium layouts. Technologies like the 'Tensioned Wire Grid' and the 'Immersive Sound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to provide the optimal performance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stage format.

Sponsored by 

© 배지훈



다크필드 3부작 ‘고스트쉽’, ‘플라이트’, ‘코마’

10. 22. Sat - 11. 19. Sat
U*스테이지
All Seats 33,000

“당신의 현실을 확실하게 뒤흔들 째고 강렬한 경험” – 시드니 모닝 해럴드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쓰면, 곧 모든 빛이 사라지고 소리는 더욱 선명해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상상의 그림을 완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영국의 이머시브 씨어터 그룹 다크필드(DARKFIELD)는, 2017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등장한 후 발표하는 신작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전 세계 25만 명 이상을 매혹적인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다크필드가 자아낸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60도 입체음향과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특수효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몰입형 경험(Immersive Experience)을 선사한다.

설렌 마음을 품고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플라이트>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익숙한 기내 풍경과 안내 방송을 하는 승무원들. 하지만 어둠 속에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또 다른 공간인 <코마>에서 우리는 병실에 누워 약을 먹고, 깊은 코마(무의식) 상태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코마에 빠져 꿈쩍 못 하는 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지는 그 누가 알겠는가? 마지막 여정 <고스트쉽>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했던 죽은 자와의 대화를 위해 여객선에 오르게 된다. 바다 한가운데, 도망칠 곳 없는 선실 안에서 용감한 이들이 영혼을 불러내기 위한 의식을 시작한다. 보지 말고, 경험하라!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미지의 모험을 선사할 다크필드의 초현실 3부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DARKFIELD Trilogy: Séance, Flight, Coma

관람연령 | 14세 미만 관람불가

Age Guidance | 14+

Notice |

*임산부, 1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척추 및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께는 적합하지 않으며, 티켓 유무와 상관없이 입장이 제한됩니다.

*한국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음성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Korean with only Korean audio provided.

Ever since its debut at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in 2017, the British immersive theatre group DARKFIELD has marked a complete sell-out for every new creation, leading over 250,000 audiences around the world into the mesmerizing darkness they conjure. In this trilogy, DARKFIELD presents an immersive experience, as if entering a whole new world, by inviting audiences into a pitch-dark space enhanced through 360-degree stereophonic sound and special effects that stimulate all the senses—except your sight.



Coma ©Mirneia Bodovic



Flight ©Mirneia Bodovic



Séance ©Sean Pollock

공연일	회차	코마(30분)	고스트쉽(20분)	플라이트(30분)
평일 (화~금) *일 공연없음	1회차	2pm	2:45pm	3:20pm
	2회차	3pm	3:45pm	4:20pm
	3회차	4pm	4:45pm	5:20pm
	4회차	5pm	5:45pm	6:20pm
	5회차	7pm	7:45pm	8:20pm
	6회차	8pm	8:45pm	9:20pm
주말 (토~일)	1회차	11am	11:45am	12:20pm
	2회차	12pm	12:45pm	1:20pm
	3회차	2pm	2:45pm	3:20pm
	4회차	3pm	3:45pm	4:20pm
	5회차	4pm	4:45pm	5:20pm
	6회차	5pm	5:45pm	6:20pm
	7회차	7pm	7:45pm	8:20pm
	8회차	8pm	8:45pm	9:20pm

*다크필드 3부작의 연속 관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입장표를 참고하시어 회차별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안내



Club ARC

12.2. Fri / 12.3. Sat / 12.9. Fri / 12.10. Sat
 Fri 7pm / Sat 5pm, 8pm
 U*스테이지
 All Seats 66,000

1년에 한 번, LG아트센터 서울의 틈새에 피어나는 클럽

1년에 한 번, LG아트센터 서울에 'Club ARC(클럽 아크)'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열린다. 입구에서 웰컴 드링크를 받아 들고 입장하면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뜨겁게, 저마다의 개성으로 클럽을 가득 채워줄 4팀의 아티스트가 클럽의 문을 두드린다. 귀를 감싸는 황홀한 재즈와 드링크를 즐기자. 마시고, 리듬을 타고, 마음껏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다.

관람연령 | 20세 미만 관람불가
 Age Guidance | 20+
 공연 & 무료 음료 1잔
 Live Music, Dance & 1 FREE DRINK

Once a year, the secret door to Club ARC opens at the LG Arts Center SEOUL. After being served a welcome drink at the entrance, audiences will encounter a space filled with the unique personalities of four artists, which are tender at times, sizzling at others. Feel free to enjoy the captivating jazz music accompanied by drinks. While here, you are welcome to drink, groove to the rhythm, and stand up from your seat.

*2022년 Club ARC 협력프로듀서 계명국 / 공간디자이너 유재현



Club ARC: Q the Trumpet & Large Ensemble
 12.2. Fri 7pm

혁신과 독창성으로 무장한 20세기 최고의 재즈혁명가, 베이시스트 찰스 밉거스 탄생 100주년 기념 한정 공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힙스터들이 한데 모여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출연: Q the Trumpet & Large Ensemble(with Special Guest)



Club ARC: Bandoneon Candlelight
 12.3. Sat 5pm, 8pm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하는 12월, 탱고의 영혼, 반도네온이 들려주는 음악과 이야기가 아쉬움과 기대를 감싸 안는다. 반짝이는 불빛, 타오르는 벽난로, 둘러앉은 사람들, 더 따뜻한 겨울밤의 Club ARC

출연: 고상지밴드

JAZZ



클라우드스윙밴드



세이지민스윙텟

Club ARC: Swing of My Life
 12.9. Fri 7pm

스윙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 그저 스윙 음악이 좋은 춤알못 당신, 지금 막 스텝을 밝기 시작한 당신, 그리고 오직 마음껏 춤출 날을 위해 칼을 갈았던 당신, 그런 모두를 위해 Club ARC가 준비한 단 하루밤! 한국 최고의 스윙밴드와 댄서들이 당신의 Swing을 기다린다.

출연: Golden Swing Band & Sage Min Swingtet(with Special Dancers Nalla&Jessica, Ardante&Meti, Andy&Eileen)



Club ARC: Club ALLURE
 12.10. Sat 5pm, 8pm

클래지콰이와 이바디의 여신, 호란이 자아내는 매혹의 라운지로 당신을 초대한다. 때로는 어쿠스틱하게, 때로는 일렉트릭하게, 역동적인 사운드와 자유로운 비트에 몸을 맡기고 빠져드는 2022 Club ARC의 마지막 밤

출연: 호란 with friends

JAZZ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12. 15. Thu - 12. 18. Sun
Weekdays 5pm, 8pm /
Weekend 1pm, 4pm, 7pm
U*스테이지
All Seats 45,000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둠 속의 선명한 빛”

- The Arts Review

7살의 주인공 '나'는 슬픔에 빠진 엄마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쓰기 시작한다. 아이스크림, 물총싸움, 밤에 몰래 TV 보기 같은 것들. 7살의 '나'를 기쁘게 했던 리스트는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에 묻혀 한동안 잊혀진다. 성인이 된 '나'는 우연히 어릴 때 썼던 리스트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리스트를 다시 써 내려간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와도 '내게 빛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영국 연극계가 주목하는 젊은 극작가 던컨 맥밀란은 카타르시스적 웃음과 진솔한 슬픔 사이에서 탁월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1인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가장 내밀한 비극 속으로 파고들어 가면서도 관객들이 웃음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연극이 줄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내게 빛나는 모든 것들의 리스트가 '나'를 구원했는지, 행복은 리스트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자.

Duncan Macmillan's play *Every Brilliant Thing*

관람연령 | 14세 이상 추천
소요시간 | 90분(휴식 없음)
Age Recommendation | 14+
Duration | 90mins with no interval
*회차별 캐스팅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As a seven-year-old protagonist, "I" start to write a list of everything that makes me happy for my grieving mother. The list includes ice cream, water fights, and staying up past bedtime to watch TV. Could this list continue to make me happy even when life begins weighing me down more and more? Considered one of the best works of playwright Duncan Macmillan, this monodrama will be comple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udiences.



이창훈



김아영



정새벌

개관 페스티벌 패키지 안내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안내!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 SIGNATURE석으로 상향 선택이 가능하며, A석이 없는 공연의 경우 패키지 구성 시 낮은 등급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패키지는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는 구매 후 바로 구성 공연의 좌석지정을 권장합니다. 해당 좌석 등급 매진 시 좌석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서는 취소가 불가하며 구성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 공연의 관람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KOR



ENG



내 취향대로 구성하는 나만의 셀렉션 자유 패키지

- 2022년 개관 페스티벌 공연의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패키지는 요안 부르주아 '오프닝2'는 제외된 상품입니다.

8편 이상 선택 시 ... 3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1.18.(금)

6편 이상 선택 시 ... 2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1.26.(토)

4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2.10.(토)

내 취향대로 구성하는 나만의 셀렉션 자유패키지(+오프닝2) *판매마감

- 2022년 개관 페스티벌 공연의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패키지는 '기울어진 사람들' + '오프닝2'는 반드시 필수 선택이며 2개의 작품은 한 개의 공연으로 간주됩니다.
*요안 부르주아 '오프닝2'(1만원)는 패키지 할인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편 이상 + 오프닝2 ... 3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1.18.(금)

6편 이상 + 오프닝2 ... 2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1.26.(토)

4편 이상 + 오프닝2 ... 15%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2.10.(토)

보지 말고, 경험하라! 다크필드 3부작 패키지 *판매마감

- 다크필드 3부작 '고스트쉽', '플라이트', '코마'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공연별 1매 * 3개 공연)
- 개별 티켓 대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를 완료하신 후 3개 공연의 관람 회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공연별 관람 날짜와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공연별로 관람 날짜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 구성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패키지는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고스트쉽', '플라이트', '코마'를 모두 구매하면 10% 할인!

예매 기간: 2022.7.11.(월) - 11.18.(금)

All Seats

99,000 ... 89,100

*작품별 공연 일정 및 기타 정보는 공연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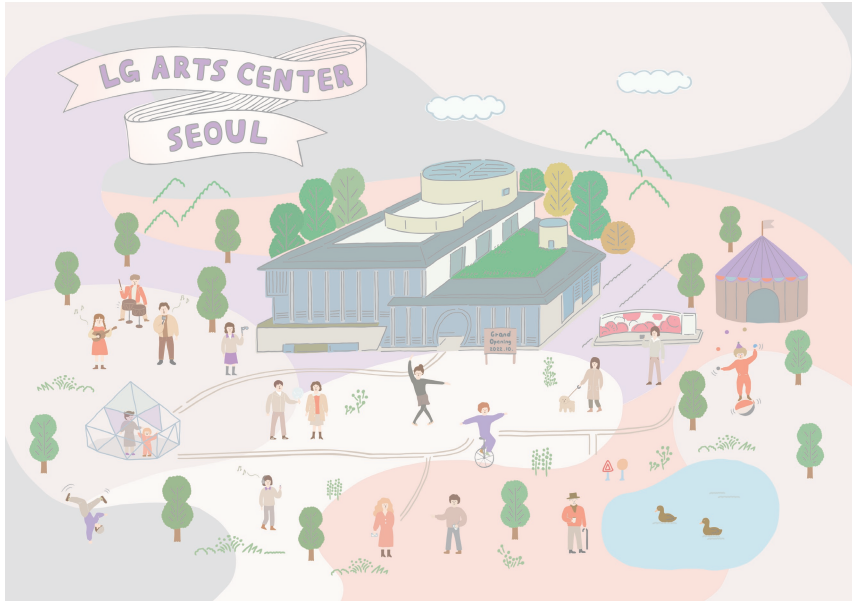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 22-23

LG아트센터 서울 교육 프로그램 첫 번째 시즌이 건축, 클래식, 무용 등 각 분야 국내 최고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시즌은 국내 건축 교육의 대표주자 정림건축문화재단과 야심차게 마련한 공연장 건축 교육 프로그램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맞춤형 클래식 공연 교육, 그리고 국립현대무용단 초대 예술감독인 홍승엽 안무가가 참여하는 무용 예술 워크숍까지, 공연장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 3층에 마련된 특별한 교육 공간에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한층 확장된 예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ucation Programs 22-23

건축 ARCHITECTURE

LG아트센터 X 정림건축문화재단

클래식 CLASSICAL MUSIC

LG아트센터 X 서울시립교향악단

무용 DANCE

LG아트센터 X 국립현대무용단

교육 프로그램 안내



The first education program at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2022 to February 2023. By collaborating with prestigious cultural institutions in Korea, such as the Junglim Foundation,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be offering unique and high-quality education programs for everyone. Audiences of all ages, from children and teenagers to adults can take part. These programs will offer an expanded art experience in the education spaces located on the 3rd floor of the LG Arts Center SEOUL.

편의시설

F&B(Food and Beverage)

1층 T+ 편의점

T+ (티플러스)는 TYPE (타이프)에서 선택한 다양한 국내의 스낵과 음료, 그리고 디자인 오브제와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고급 편의점 겸 편집숍입니다.



2층 TYPE 카페 &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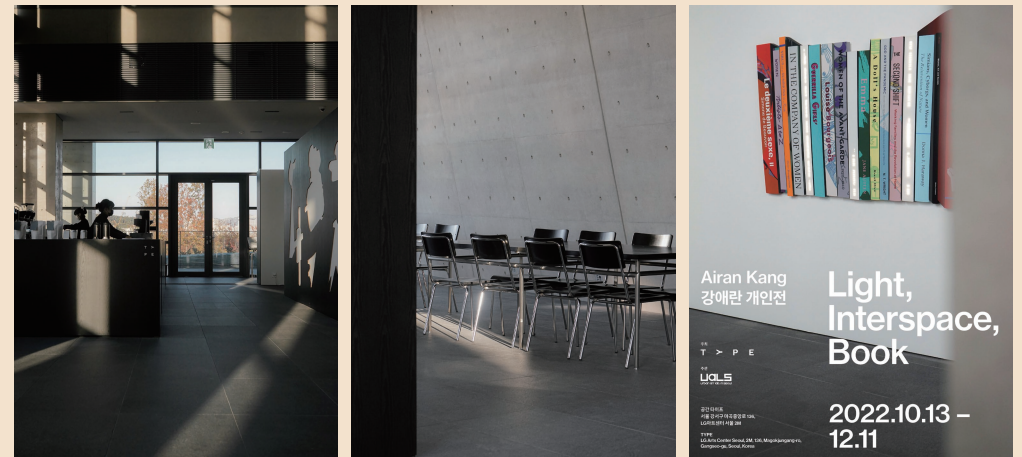
스페셜티 커피와 갤러리가 공존하는 카페 TYPE는 새로운 향미의 커피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가이드로써, 처음 만나는 커피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피가 가진 매력을 색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한 컵의 훌륭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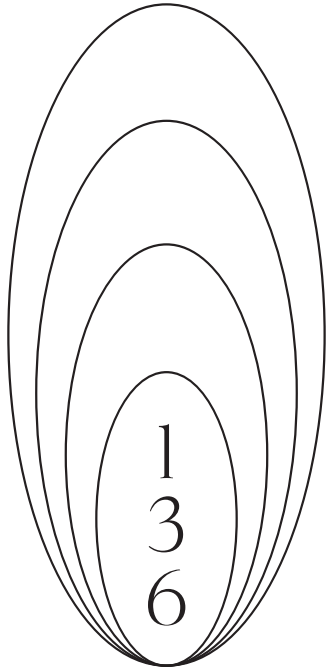
계절별 싱글 오리진과 에스프레소 기반의 다양한 커피 음료를 제공하며 커피 원두는 로스터리와 연계하여 수확기에 따라 다양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TYPE의 바리스타 팀은 모든 커피가 가진 개성과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컵 퀄리티와 함께 고객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Ando Tadao)가 디자인한 건축물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권오상과 협업하여 디자인한 갤러리 공간과 함께 서울식물원을 바라보며 TYPE의 카페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의 TYPE 갤러리 공간에서 강애란의 개인전 «Light, Interspace, Book»을 12월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의 향기 136

Inspired by TUBE

WOODY * SPICY * FLORAL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튜브(TUBE)에서 영감 받은 향기 136은 무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ragrance Note

Top Bergamot, Orange, Lemon, Ginger
Middle Rose, Ylang Ylang, Jasmine, Clove
Base Sandalwood, Cedarwood, Patchouli

LG Arts Center
×
Scent Berry Perfume House

이용안내

LG아트센터 서울 회원이 되면 좋은 점!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 LG아트센터 서울 회원이 되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 취소, 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 우수회원 2%가 적립됩니다
• 기획/대관 구분 없이 적립되며 1,0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일부 공연 제외)

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TMI는 뉴스레터로!

•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면, 관람의 깊이와 감동이 커집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마곡동, LG아트센터 서울)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안내

9호선/공향철도

마곡나루역 3,4번 방향의 지하통로에서 바로 연결

5호선 마곡역

3번 출구에서 700M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Information

LG아트센터의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선물하세요!

기프트카드



오직 LG아트센터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공연 관람 경험을 선물하세요.

구매 및 사용 방법



법인회원 안내

• LG아트센터 서울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인회원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 DNA를 개발시키고, 활기를 불어 넣으세요!

법인회원권 구매방법



◀ LG아트센터 서울 방문 경험 설문조사

QR코드 접속 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

2022.10.13. – 12.18.

LG SIGNATURE 홀

10.13. Thu 7:30pm

사이먼 래틀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piano 조성진)

VIP 400,000 R 350,000 S 280,000 A 190,000

B 100,000

10.15. Sat 7pm

알 디 메올라 재즈 트리오 (guest guitar 박주원)

R 90,000 S 70,000 A 50,000

10.19. Wed – 22. Sat

Weekdays 7:30pm / Sat 5pm

박정현 콘서트 '지금'

R 140,000 S 130,000 A 110,000 B 90,000

10.28. Fri – 30. Sun

Weekdays 7:30pm / Weekend 3pm

이날치 신작 '물 밑'

R 70,000 S 50,000 A 30,000

11.3. Thu 7:30pm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DR's Pick III

'세헤라자데' (piano 선우예권)

R 70,000 S 50,000 A 30,000 B 10,000

11.10. Thu – 13. Sun

Weekdays 7:30pm / Sat 2pm, 7pm /

Sun 2pm, 6:30pm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

R 85,000 S 65,000 A 45,000

11.18. Fri 7:30pm – 19. Sat 3pm

아크람 칸 컴퍼니 '정글북: 또 다른 세계'

R 90,000 S 70,000 A 50,000 B 30,000

11.25. Fri – 27. Sun Fri 7:30pm / Weekend 3pm

요안 부르주아 & CCN2 Grenoble '기울어진 사람들'

LG SIGNATURE 90,000 R 80,000

S 60,000 A 40,000

12.2. Fri 7:30pm – 3. Sat 3pm

김설진X무버 & 김재덕X엠비크루 '브레이크 스루'

R 60,000 S 40,000

12.9. Fri 7:30pm – 10. Sat 4pm

이자람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All Seats 50,000

12.11. Sun 3pm

파보 예르비 & 도미치 캄필하모닉

(Violin 클라라 주미강)

VIP 200,000 R 150,000 S 100,000 A 60,000

U+ 스테이지

10.22. Sat – 11.19. Sat

다크필드 3부작 '고스트쉽', '플라이트', '코마'

All Seats 33,000

*작품별 공연 시간은 공연 소개 페이지 참조

11.25. Fri – 27. Sun

Fri 7:10pm, 8:50pm / Weekend 2:40pm, 4:20pm

요안 부르주아 '오프닝2'

All Seats 10,000

12.2. Fri / 12.3. Sat / 12.9. Fri / 12.10. Sat

Fri 7pm / Sat 5pm, 8pm

Club ARC

All Seats 66,000

*작품별 공연 시간은 공연 소개 페이지 참조

12.15. Thu – 18. Sun

Weekdays 5pm, 8pm / Weekend 1pm, 4pm, 7pm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All Seats 45,000

